

# 자연재난 때 중대본 더 빨리 가동된다

## 행안부, 중대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3단계때 본부장 ‘국무총리’ 승격...대변인 소방·경찰 맡아

자연 재난이 우려될 때 법정부처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더 빨리 가동되고 비상대응 수위가 높아진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연 재난에 따른 중대본 편성 기준을 2 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사회 재난은 종전대로 비상단계 구분 없이 중대본을 즉각 편성한다.

기상 특보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자연 재난의 경우 재난 상황에 따라 비상단계를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중대본을 꾸리게 된다.

여태껏 3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면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 뒤 전국적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최고 수위인 2단계로 전환했다.

기상 상황과 재난 발생 여건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중대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인력을 동원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3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면 1단계, 3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경보가 발령되거나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면 2단계,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면 3단계로 격상하고 2 단계부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대본이 자연 재난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조치인 3단계에서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승격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재난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없도록 홍보 총괄업무를 행안부 대변인이 아닌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중대본을 종전보다 선제적으로 꾸리고 인력을 더 늘려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스

## 나주 신축 건물 공사장 ‘옹벽 붕괴’

1일 오후 7시14분께 나주시 송월동의 신축 건물 공사 현장 옹벽이 일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주유소를 철거한 자리에 5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터파기를 한 공사 현장 뒷면 도로와 맞닿은 옹벽이 15~20m 가까이 무너져 내렸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가 일부 유실되고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상가와 종교 시설 등의 수도물 공급이 중단돼 긴급 복구공사가 진행됐다.

또 도로와 옹벽 사이에 설치된 전봇대도 기울어 주저앉아 정전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이 크레인을 동원해 전봇대가 더 이상 기울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했다.

## 노숙자, 도서관 빈자리 가방서 금품 훔쳐

광주 북부경찰서는 5월 31일 대학 도서관 열람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광주 모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11차례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열람실에 책을 펴놓고 방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자리를 비운 학생들의 가방·지갑을 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도서관에 오갈 때 모자·안경·마스크 등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출소에 노숙생활을 하던 지씨는 훔친 돈으로 민화방·PC방·숙박업소를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 광양국가산단내에서 용접 중 폭발 2명 부상

1일 오전 9시 38분께 광양시 광양국가산단내 포스코 제철소에서 용접 중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제철소에 따르면 이날 포스넵 (이차전지 소재인 니켈을 추출하는 설비) 파일럿 설비의 환원철 탱크 상부에서 태영 ENG 직원 2명과 포스넵 직원 1명이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폭발해 상부 커버가 탈락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태영 ENG 소속 서 모(62) 씨와 포스넵 소속 김모(37) 씨가 중경상을 입고 순천성기의료병원으로 후송됐다. 나머지 1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경찰서와 제철소는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 택시기사 폭행한 손님 2명 잇달아 검거

부산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남성 손님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A(39)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 앞서 남부경찰서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C(6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5월 31일 오후 9시 5분께 70대 기사 D씨가 운행하던 택시 뒷자석에 승차한 이후 “뺨뺨 돌아가냐”며 D씨에게 욕설을 하고 복달미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트럭 브레이크 풀려 어린이집 들이받아

주치된 1톤 트럭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어린이집 현관을 덮쳤다.

5월 31일 서울 송파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1분께 송파구 거여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 주차해있던 1톤 트럭의 브레이크 장치가 풀리면서 해당 어린이집 현관으로 돌진해 부딪혔다.

다행히 트럭에 직접 부딪힌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다뉴브강 수색작업 2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현장에서 헝가리 구조대가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 광주고법 “지만원씨 화보집,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 “표현의 자유 범위 초과”...지 씨 항소 기각

지만원씨가 2016년 발간한 5·18 관련 화보집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무신)는 5월 31일 5·18 기념재단·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 4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5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 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원고들을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했

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지 씨가 1980년 5·18 당시 이른바 북한특수군 ‘광수’ 40여 명이 광주에 등장한다는 취지의 화보집을 2016년 발행, 자신들의 인격권과 함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인용)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지 씨는 5월 단체에 각각 500만 원 씩을, 박 씨 등 개인에게 각각 1500만 원 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해당 화보집의 발행·추가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

포·광고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도서를 발행·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당 200만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사실상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했다. 이에 지 씨는 항소했다.

1심은 또 “화보집 및 게시글에 적시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지 씨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주춘정 기자

### 에어컨 실외기 화재 70% 여름철에 발생

소방청은 때 이른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위해도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2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간 발생한 냉방시설 관련 화재 건수는 691건이다.

월별로는 8월이 211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7월 205건(29.7%), 6월 62건(9.0%), 9월 46건(6.7%), 5월 41건(5.9%), 10월 24건(3.5%), 4월 20건(2.9%) 등의 순이다.

냉방시설 화재 10건 중 7건(69.2%)이 여름철인 6~8월 사이에 발생한 셈이다.

냉방시설 화재의 35.9%(248건)은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됐고, 실외기 화재 원인의 64.5%(160건)는 과열·과부하·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사전 안전점검이 필수다. 에어컨과 실외기의 손상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면서 벽과 1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 한 뒤에는 전원을 꺼 실외기의 열을 식히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뽑아줘야 한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